
S상-결장의 선종성 종양의 초음파검사의 접근방법

황정득내과의원

전득수, 황희자

목 적 : 경북부 초음파검사서 S상결장에 Non-symptom의 선종성 종양이 높은 빈도로 검출된다. 이에 적극적인 초음파검사의 접근방법을 제안하려 한다.

대상 및 방법 : 2003년 4월부터 최근 5개월간 1천명을 대상으로 복부초음파를 시행한 전체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환자는 관장하지 않는 공복상태에서 하행결장에서 직장까지 적극적으로 초음파검사를 시행하는데, 1차적으로 복강전체를 표적으로 scan하고, 2차적으로 결장의 주행방향으로 연속 추적주사하며 반복적으로 재현한다. 또한 병변이 의심된 환자군은 반드시 관장약을 복용하고 다음날 재검사하였다.

결 과 : 전체 환자군 1천 명 중에 5명이 S상-결장의 선종성 종양이 의심되어 관장하고 다음날 초음파 재검에서 3명이 양성으로 판명되었으며, 여성환자는 좌측난소종양이 의심되어 다음날 재검사에서 S상-결장 선종으로 판명되었다. S상결장에 선종성 종양을 보인 환자군은 모두 무증상이었다.

종양의 크기는 각각 0.9, 2.3, 2.5, 3.5 cm이었다. S상결장 종양의 초음파상 특징은 원형 또는 타원형이며 대장벽은 정상으로 묘출되며 장의 위치이동이 심하다. 종양과 감별을 요하는 굳은 장내용물은 장내에서 밀리는 소견과 종괴의 타원형방향에서 가장자리가 불규칙한 면과 장축이 단축보다 상대적으로 크다.

결 론 : S상-결장에 국한적으로 빈발하는 무증상의 선종성 종양을 조기에 발견하는 방법으로 적극적인 S상-결장 초음파검사가 필수적이라고 사료된다.